

대한제국의 한어학교에 관한 연구

이광숙¹⁾

<요약>

대한제국이 설립 (1897)되기 전 1895년 외국어학교 관제에 따라 근대식의 외국어학교로서 영어학교, 일어학교, 한어 (중국어)학교, 법어 (프랑스어)학교, 덕어 (독일어)학교와 아어 (러시아어)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중 한어학교는 일어학교와 마찬가지로 1891년에 이미 수업이 시작되었다. 한어학교는 청일전쟁 (1894-1895)으로 1894년에 수업을 중단하였다가 1897년에 다시 재개하였다. 다른 어학교와 마찬가지로 한어학교도 외국어학교관제의 규정을 따랐다. 수업연한은 3년, 학기는 2학기제, 입학조건은 15세 이상 23세 이하의 일반인이 국어와 한문으로 된 독서와 작문 시험을 보아야 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1906년도에 변경되었다. 3학기제로 되고 입학조건은 12세 이상의 남자로 제한되었다. 한어학교를 위시한 외국어학교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 1911년에 폐쇄되어 경성고등보통학교에 편입된다.

한어학교의 교과과정은 언어 습득과목과 언어외 습득과목으로 나눌 수 있다. 언어 습득과목으로는 읽기, 쓰기, 말하기, 받아쓰기, 문법 등의 강좌가 있으며 한어학교는 언어의 특성상 발음, 사성, 구독점의 과목이 있었다. 언어외 습득과목으로는 역사, 지리, 이과, 수신, 체육 수업이 제공되었다. 한어학교 졸업자의 취직 상황은 교관, 교사, 시종, 사무원, 군수 등 다양하였다.

【핵심어】 한어학교, 청일전쟁, 외국어학교관제, 언어습득과목, 언어외 습득과목

1)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 교수 (prlks@snu.ac.kr)

1. 논문의 목적

한국은 중국과 이웃하는 나라로 이미 고대 시대부터 문물과 문화 뿐 아니라 언어 면에서도 중국과의 교류가 긴밀하였다. 당시 한국어의 문자가 존재하지 않아 한자를 문서에 사용한 점 역시 두 언어간의 연관이 많았음을 시사해 준다. 이에 따라 외국어 교육 중에서 중국어 학습이 한국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19세기 말 정부에서 설립한 관립외국어학교 중에서 한어(漢語)²⁾(중국어)학교를 중심으로 설립 배경, 설립 장소 및 교과내용, 교사, 학생, 교재 등을 다루고자 한다. 이 시기를 선택한 것은 당대 한어학교를 포함한 언어 교육이 현재 한국의 외국어 교육에 교육목표, 방법, 내용 등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관계 문헌, 논문과 저서 등을 근거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2. 역사적인 배경

신라(기원전 57-기원후 935)에서는 682년에 당나라(618-907) 교육제도를 본받아 국학을 두었다. 선덕여왕 시기(632-647)부터 신라는 당나라로 최초의 유학생을 보내기 시작하였으며 유학생 수가 많을 경우에는 100여명에 달하였다. 이 유학생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최치원이었다. 고구려(기원전 37-기원후 668)와 백제(기원전 18-기원후 663)도 당나라에 유학생을 보냈으며 640년경 당나라에 삼국의 유학생 수가 8000명에 달하였다(한용수 2000, 642쪽). 당나라의 수도 장안은 대외 한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중심지가 되었다.

당나라로 유학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었다. 우선은 정치,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중국의 문물과 제도를 실제로 가서 보고 배우는 것이었다. 또한 문서 왕래나 사신 방문 등 문어나 구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한어를 중국에서 직접 배우고자 하였다.

후삼국시대의 태봉(901-918)은 한국 역사상 가장 먼저 언어전문기구를 설치한 왕조로서 사대(史臺)라는 관청을 중앙에 두어 모든 역어(외국어) 학습을 관장하였다(조인성 1991, 63-65쪽).

고려시대(918-1392)에는 원(1206-1367)나라 몽고와의 관계가 정치, 사회, 문화뿐 아니라 언어에도 많은 영향이 미치게 되었다. 몽고어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역관(통역, 번역가)의 지위가 높아졌다. 특히 몽고어를 하는 역관이 중히 여겨졌으며 역관의 명칭

2) 한어는 중국에 존재하는 50여 이상의 민족중에서 한족(漢族)이 쓰는 말로 중국인구의 94%가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어라 칭하기도 한다.

도 다양하여 통사(通事), 역어(譯語), 역자(譯者), 설인(舌人), 적제(狄鞮)(김수진 1981,3 쪽) 등으로 불렸다. 역관에 관한 명칭이 다양한 것은 이들이 수적으로 많았음을 의미한다. 1276년 통문관이 설치되었는데 역관을 정식으로 양성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이었다. 통문관은 처음에는 한어와 몽고어만을 가르쳤고 후에 사역원(통역, 번역기관)으로 바뀌어졌다. 통문관, 사역원이외에도 한학을 가르치는 한어도감이라는 기구가 있었다.

조선(1392-1919)은 고려시대 사역원을 그대로 받아들여 1393년 중국어를 가르치고 연구하며 또 번역과 통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 행정기관으로 발전시켰다. 사역원은 갑오경장(1894)으로 폐지되기까지 500여 년간 조선의 외국어교육을 담당한 기관이었다. 사역원에서는 초기에는 한학(중국어)과 몽학(蒙學, 몽고학)을 두었다. 조선은 임진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36-1637)을 겪으면서 역관의 필요성과 외국어 학습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어 왜학(일본학)과 여진학(만주학)이 추가하여 사학(四學)이라 하였다. 이 사학에서 중국어, 몽고어, 일본어, 여진어(만주어)를 가르쳤고 통역, 번역 교육에 필요한 역학서를 편찬하였다.

조선시대 사역원 학생 정원은 80명으로 한학 35명, 몽학 10명, 왜학 15명, 청학 20명이었고 예비생도 수는 124명이었다. 지방의 역학생은 206명 정원으로 한학 105명, 여진학 55명, 왜학 46명이었다(정광, 윤세영, 1998, 51쪽). 이 정원은 적은 수가 아니었으며 이 숫자에서 당시 외국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어학습을 위해서 교재는 해당국에서 수입하거나 사역원에서 개정 또는 편찬하여 썼으니 이를 역서 또는 역학서라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중요시되었다. 세종(1419-1450)은 명나라(1368-1662)에 유학생을 파견하려 하였으나 명이 거절하자 학생들을 의주로 보내어 요동을 내왕하여 한어를 배우게 하였으며 후에는 학생들을 사역원으로 보내어 외국어를 배우게 하였다. 사신이 북경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도 한어를 익히게 하였으며 학자들을 요동에 파견하여 한어를 배우게 하였다.

조선은 1880년대에 대원군의 쇄국정책에서 벗어나 문호개방을 하게 되면서 미국, 영국, 독일 등과 1882년 수호통상조약을 맺게 된다. 이로서 조선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리게 되어 서양어와의 교류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통역관과 사무 담당 실무진이 필요하였다.

청나라는 조선정부에 독일인 뮐렌도르프(Möllendorff)를 외교통상 및 해관 고문으로 추천하였다. 뮐렌도르프는 1882년 12월에 조선에 들어와 외교 고문관으로 활동하면서 외국어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설립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1883년 양어(서양언어)를 가르치는 동문학이 서울에 설립되어 영어를 가르쳤으며 학생은 40명 정도이었다. 통역관 양성을 위한 이 학교는 한국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며 영어학교인 셈이다. 그러나 동문학은 본격적으로 외국어를 가르치는 정부 기관인 육영공원이 설립되자 1886년 문을 닫게 되었다. 육영공원의 교과내용으로는 독서, 작문을 위시하여 수학, 자연과학,

지리, 역사, 정치와 각국 언어가 있었다. 각국 언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어를 가르쳤다.

육영공원에서는 미국인 헐버트(H. B. Hulbert), 벙커(D. A. Bunker), 길모어(G. W. Gilmore)가 영어로 가르치고 교과서도 영어로 된 것을 사용하였다. 1893년에는 강화도에 있던 해군 무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영국인 하치슨(W. du F. Hutchison)이 서울로 와서 육영공원을 맡게 되었다. 육영공원의 명칭이 영어 학교로 바꾸고 이 학교가 발전하여 1895년 관립외국어학교로 기구가 커지게 되었으며 관립외국어학교에 한어학교가 속하게 된다.

3. 한어학교의 설립과정

1894년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개혁(갑오경장)이 단행되었으며 조선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었다(1897년). 갑오경장으로 정치기구가 개편되면서 사역원은 폐지되었다.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와 외교 및 통상관계를 갖게 되자 이들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아는 외교관 또는 통역관이 절실히 필요하여 1895년 관립외국어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에 여섯 종류의 언어 학교가 속하게 되니 영어학교, 일어학교, 한어학교, 법어학교, 덕어학교, 아어학교이다.

일어학교는 실제로는 이미 1891년 서울에 세워져 운영되고 있었으며 1895년에는 인천, 1907년에는 평양에도 설치되었다. 영어학교는 육영공원을 계승하여 1894년부터 운영되었다. 1895년에 법어학교, 1896년에 아어학교, 1898년에 덕어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외국어학교들은 초기에는 분리되어 운영되었다.

한어학교는 일어학교와 마찬가지로 1891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장소는 견지동 우정국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한어학교는 청일전쟁(1894-1895)으로 청국이 패함에 따라 1894년 6월 폐쇄되었다. 1895년 5월 칙령 제 88호 외국어학교 관제법이 선포되었고 1897년 5월 1일 관립한어학교가 3년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 중국인 교사로는 후원웨이(胡文煒)가 초빙되었다.

한어학교는 다른 어학교와 함께 1906년 9월(칙령 제 40호)에 학교의 소재가 명시된 관립한성한어학교로 칭하게 된다.

1906년을 계기로 외국어학교 규칙이 변경된다. 외국어학교의 목표가 외국어 습득이 외에 실무에 관한 인재 양성이 추가되었다. 입학조건은 초기에 15세 이상 23세 미만의 남녀를 구분하지 않던 것이 1906년 이후 12세 이상의 남자로 제한된다. 학기제도는 초기의 2학기 제도가 3학기 제도로 운영되었다.

1908년 1월1일(칙령 제 55호)부터 일어, 영어, 한어, 법어, 덕어 다섯 학교³⁾를 합병하

여 관립한성외국어학교라 하고 각 언어는 어학부 즉 한어부 등으로 개칭된다. 건지동에 위치한 한어학교는 1904년에는 중부 전동으로 이전하였다가 1908년 다른 어학부와 함께 4월13일 교동에 관립한성외국어학교로 합치게 되었다.

1909년 10월20일 관립한성외국어학교 학칙이 다시금 수정되어 본과 및 일어속성과가 설치된다. 본과에 일어부, 영어부, 법어부, 덕어부, 한어부가 속하게 된다.

1910년 8월29일 한일합방으로 조선통독부가 설치되어 1911년 9월1일자 조선교육령이 공포된다. 이 교육령에 의하여 관립한성외국어학교는 1911년 11월1일자로 폐지되었다(이광린 1999, 185쪽). 이 때에 3학년 학생은 계속 공부를 하게하고 1, 2학년 학생은 경성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등학교)에 편입된다(김영우 1983, 178쪽).

4. 한어학교의 교과내용

한어학교의 교육목표는 중국어를 가르치는 것이며 통역관과 실무진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한어학교가 속해있던 외국어학교의 교칙은 1895년과 1911년 사이에 수시로 조금씩 수정, 보완되어 전체를 조망하기에 혼란한 점이 없지 않다. 교육의 목표, 수업연한, 입학조건 등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4.1 교육의 목표

1895년 5월에 반포된 관제에서는 외국어학교의 목표는 외국의 어학을 교수하는 것이었다. 이 관제가 1900년 6월(학부령 제 11호) 외국어학교규칙에 의해 수정, 보완된다. 목표에는 외국어 외에 보통학(普通學) 그리고 한문으로 된 독서, 작문도 포함하였다. 보통학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근대적 사회생활을 위한 지식을 의미하며 역사, 지리, 산술, 이과, 체조 등을 의미한다(이나바 쓰기오, 홍준기역 2006, 52쪽).

1906년 8월의 외국어학교령(칙령 제 43호)에 의하면 외국어학교는 외국어에 능숙하여 실무에 적당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교육목표가 처음에는 어학만을 교수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외국어를 습득하여 실무를 겸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하는 것으로 상세화 되었다.

외국어교육의 수업연한은 1900년대에 동양어인 일어, 한어는 3년으로 서양어인 영어, 법어, 아어, 덕어는 5년으로 정해졌다. 이 수업연한은 1902년 3월 일부 개정되는데 일어와 한어의 교육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1906년 8월 개정안에 의해 외국어학교의 모든 언어의 수업연한이 3년으로 바뀌었다.

3) 아어학교는 노일전쟁 (1904-1905)으로 1904년 폐쇄되었다.

4.2 학기제

학기제는 1900년도 이전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1900년도에 한 학년을 춘학과 추학기로 나누고 봄학기는 1월4일에서 하기 휴학일까지, 가을학기는 교장이 정한 날부터 12월 30일까지이다. 이 2학기 제도가 1906년에 3학기 제도로 바뀌어 1학기는 4월1일에서 8월31일, 2학기는 9월1일에서 12월31일, 3학기는 1월1일에서 3월31일로 되었다. 수업일수는 매 학년 200일 이상으로 한다. 한 학년이 4월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31일까지이며 한 학기가 3학기제인 것과 200일의 수업일수는 1906년도 이후에는 변동이 없다.

4.3 입학조건

입학조건에 관해서 1900년도 이전까지 별도의 언급이 없다. 1900년도 이후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만 15세 이상 23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자로 하였다. 입학시험 과목은 국문과 한문으로 된 독서와 작문이다. 1906년 외국어학교 입학자는 12세 이상의 남자로 상당히 학력이 있는 자로 정한다. 1학년 입학시험 과목으로 국어, 한문 외에 산술을 본다. 1909년 외국어학교에 입학하고자하는 자는 12세 이상의 남자로 보통학교⁴⁾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입학시험과목은 국어와 한문, 일어, 산술, 역사, 지리 중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수업은 매일 5시간씩 이루어졌다. 평가에는 도강과 시험이 있었다. 도강은 한 학기에 배운 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하기와 동기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이 외에 월말시험과 졸업시험이 있었다. 시험과 도강시에는 학부에서 감독관이 배석을 하였고 성적우수자에게는 시상이 있었다.

4.4 교과과정

초기의 학과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다. 외국어학교 규칙에 제시된 수업과목이 실시되었을 것이다. 이 규칙에 의하면 1900년 교과목으로 외국어, 한문으

4) 1906년 9월 보통학교령시행에 의해 종전의 소학교 (5-6년제)를 개편한 보통학교 (4년제)를 설치하게 된다 (이나바 쓰기오, 홍준기 역 2006, 325쪽). 보통학교는 학생의 신체발달을 위하여 도덕교육과 국민교육을 실시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통 지식과 기(技)예(藝)를 가르치고자 한다. 이 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국어, 한문, 일어, 산술, 지리, 역사, 이과, 도화(圖畵), 체조로 하고 여자에는 수예가 추가된다. 시기에 따라 창가, 수공, 농업과 상업 중에 한 과목 또는 기(幾)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로 독서와 작문과 본국(한국)의 역사, 지리로 되어있다.

1906년 9월 개정된 외국어학교 규칙에 따르면 수신 (일종의 도덕교육), 국어, 한문, 산술, 역사, 지리, 이과, 법제, 경제, 부기, 체조이며 이 들 과목은 1909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교과과정은 외국어학교의 합병 이후인 1908년에 와서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각 과 교육내용은 1909년 3월 총독부에서 편찬한 관립한성외국어학교일람(이하 일람)의 제 3장 학과과정 및 교과용 도서(22-44쪽)에 제시되어있다. 일람 27쪽에서 29쪽에 기재된 1908년도 한어부 학과과정표⁵⁾를 설명한다.

4.4.1 1908년도 학과과정

1908년도 한어부 학과과정에 표시된 몇 가지 표현을 설명하고 내용을 알아본다. 학어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보통화 (표준어)로 된 교재나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독해를 의미한다. 한역은 중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을 의미한다. 서취는 받아쓰기, 운습은 복습을 의미한다. 독법은 일상생활의 문장이나 텍스트의 구두점을 표시하는 법을 의미한다. 증음은 음의 연습 그리고 답론은 문법을 의미한다.

1908년도에 매주 28시간씩 3년 동안 중국어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수업내용은 언어 습득과 언어습득 이외의 과목으로 나눌 수 있다. 언어습득의 영역은 발음연습, 읽기, 쓰기, 받아쓰기, 문법, 번역, 회화, 한문과목이다. 발음 연습이 강조되었으니 사성과 증음 과목이 별도로 제공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답론에서는 일상어법과 문법을 배웠다. 한문과목은 두 과목으로 되어있으며 두 과목 모두 3년 동안 배웠다. 이 중 한 과목은 표준이 되는 일상 생활의 문장을 일주일에 1시간씩, 또 다른 (한문)과목에서는 경서, 즉 고전⁶⁾을 다루었으며 일주일에 3시간씩이다. 구독법(구뒹법)이 3학년에서 이루어진다. 1학년과 2학년에서는 언어 습득에 대한 복습이 5시간씩 이루어졌다.

언어외적인 학과목에서 산술과 역사와 지리는 1-3 학년에 배당되었으며 역사와 지리에서는 한국 역사와 지리가 다루어졌다. 체조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통 체조를 1-3 학년에서 5시간씩 행해졌다.

5) 1908년도 한어부 학과과정표는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일람에 지시된 사항은 19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일람 7쪽, 8쪽 참조). 따라서 각 언어부 학과과정은 1908년도의 것이다.

6) 일람 (37-39쪽) 에 제시된 1908년도 교과서 목록에 보면 경서 중에서 논어를 배운 것으로 되어 있다.

4.4.2 1909년도 교과과정

1909년 10월20일 관보 662쪽에 게재된 학부고시 제14호에 1909년도 한어부 교과과정이 제시되어있다⁷⁾. 1909년도 교과내용에는 과목 명칭이 변경된 것이 있다. 학어는 학화로, 증음은 정음으로, 담론은 문전으로, 번역은 반역, 지지는 지리, 산술은 수학으로 변경되었다.

1909년도에는 수업시간이 전년도 보다 늘어났다. 1학년에서 1주일에 30시간 그리고 2,3학년에서는 수의과 일어 2시간을 포함하여 34시간으로 늘어났다. 1909년도에는 수신이라는 과목이 전 학년에 1시간씩 들어갔다.

일상생활의 표준 문장을 다루는 학화 시간이 1,2학년에서 1908년도 보다 5시간이 더 늘어났다. 1908년도에 1,2학년에 배당된 복습시간이 취소된 대신에 학화시간으로 대체된 셈이다. 회화시간도 3학년에서 1시간 더 늘어났다. 번역 과목은 두 종류로 나누어져서 한국어를 한문으로 번역하는 한문한역(韓文漢譯)과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한문한역(漢文韓譯)이 있으며 매 학년 1시간씩 늘어났다. 3학년에 배당된 구두법 과목은 1시간이 줄었다. 음을 연습하는 증음과목이 3학년에서 없어지고 문법시간이 늘어나 1,2학년에서 1시간, 3학년에서 2시간으로 되었다. 1908년의 한문 과목이 1909년도에는 국어와 한문과목으로 되어 3년동안 강독과 작문을 일주일에 3시간 배운다.

산술이 수학과목으로 되어 일주일에 4시간씩 늘어나 3년 동안 4가지 법칙, 소수, 분수, 비례를 배운다.

2,3학년에서 이과가 1시간씩 추가되었으며 2학년에서 박물 (동물, 식물, 광물)과 생리가 그리고 3학년에서는 물리와 화학이 제공되었다. 역사와 지지 과목은 역사, 지리 과목으로 되었고 역사에서는 3년동안 한국 역사를 배우나 지리에서는 3학년에 외국지리를 배운다. 체조시간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다. 일어에서는 가타가나와 간단한 구어체를 2,3학년에서 2시간씩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배운다.

1908년도와 1909년도 교과과정을 비교하여 언어습득과목과 언어외 습득과목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1909년도 한어부 학과과정표는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표 1. 관립한성외국어학교 한어부 교과과정 (1908년과 1909년)

1) 언어 습득과목⁸⁾

1908				1909			
과목	시수			과목	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독해	10	10	5	독해	10	10	5
회화	1	1	2	회화	1	1	3
받아쓰기	1	1	2	받아쓰기	1	1	2
번역	1	1	1	번역	2	2	2
사성	1	1	2	사성	1	1	2
구독법			1	구독법			1
증음	1	1		증음	1	1	
한문(경서)	3	3	3	문법	1	1	2
한문	1	1	1	국어/한문	3	3	3
작문	1	1	1				
				일어(수의과)		(2)	(2)
계	20	20	18	계	20	20(2)	20(2)

2) 언어외 습득과목

1908				1909			
과목	시수			과목	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수신				수신	1	1	1
수학	1	1	1	수학	5	5	5
역사	1	1	1	역사/지리	2	2	2
지리	1	1	1				
				이과		1	1
체조	5	5	5	체조	3	3	3
계	8	8	8	계	11	12	12

두 년도의 교과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1909년에는 학어라는 단어가 학화로 바뀌었으며 이 독해시간이 1, 2학년에서 배로 늘어났다(5시간에서 10시간)

8) 시수는 매주의 수업시간수를 말한다.

로). 1909년도 회화시간이 3학년에서 1시간 늘어났다. 1909년도 번역시간이 1, 2, 3 학년에서 매주 1시간씩 늘어났다. 1909년에는 문법이 1, 2학년에서 1시간 그리고 3학년에서 2시간 배당이 되었다. 한문시간이 1909년에는 국어, 한문시간으로 강독과 작문을 포함하여 1 주일에 3시간씩 3년간 제공되었다. 고전은 1909년도에는 제공되지 않았다. 온습이라는 복습과목은 1909년에는 없다. 사성과 독법, 증음 시간에는 1908년과 1909년도에 변동이 없다.

언어 외 과목으로는 수신이 1909년에 추가되고 일주일에 1시간씩 3년간 행해졌다. 산술이 수학으로 변경되어 매 학년 주 5시간 씩 대폭 늘어났다(1908년에는 1시간). 1909년 지지는 지리라는 과목으로 바꾸어 졌으며 1908년도에는 한국 지리만 다루던 것이 3학년에서는 외국 지리를 배운다. 1909년에는 2, 3학년에서 이과가 1시간씩 배당되었으며 생물, 화학, 물리를 배웠다. 체조는 1909년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다. 1909년도에 수의과로 일어가 들어간다.

전체의 수업 시간 수는 1908년에는 1,2,3학년 28시간이던 것이 1909년에는 1학년이 30시간, 2, 3학년이 34시간으로 늘어났다. 언어습득과목이 두 학년도에 매주 20시간인 것은 변함이 없다. 이 언어과목들을 전체 과목의 비율로 따져보면 1908년도에는 대략 71%이고 1909년도에는 62%에 해당한다. 언어습득과목의 비율이 1909년도 떨어진 것은 이과 과목이 추가되고 또 수학과목이 1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1909년도에는 언어습득시간이 줄어들지 않았고 경서과목이 빠진 것을 고려해보면 한어교육이 일상어를 중심으로 보다 더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어학교 교육은 당시 다른 어학교보다 발음연습이 사성, 증음, 독법 등을 통해서 강조되었다.

4.5 교사

외국어학교의 직원에는 학교장, 교관, 부교관, 서기로 구성되었고 교관에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있었다. 이들의 자격과 임용 규정에 관해서는 외국어학교 관제에 명시되어있지 않았다. 학교장은 학부에서 임명하였다. 교관들은 학생들의 수업을 담당하였으며 이 교관들의 자질을 대한 교육이나 검증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국어학교가 외국어뿐 아니라 한국 역사와 지리를 학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어서 교관들 중에서 한국인이 이 과목을 담당하였다.

학교장(1인), 교관(4인 이하), 부교관(5인 이하), 서기(3인 이하)의 인원이 정해졌으나 이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였다. 1900년부터 1901년 사이에 교관이 3명, 1902-1903년까지는 교관이 2명, 1904-1906년까지도 교관이 3명으로 설립 초기에는 일어학교, 법어학교를 제외하고 교관을 못 갖춘 상태였다(노인화 1989, 158쪽). 부교관의 업무는 각 학교의 외국인 교관을 통역하는 일을 맡았고 학교 설립시부터 임명되었다. 이들은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어학교 출신이며 최소한

도 한문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1895년 5월 관제에 의하면 부교관은 5명 이하로 규정되어있으나 1897년 11월 관제 개정시 임시 증감할 수 있었다.

1906년 7월15일 관립한성한어학교장, 관립한성영어학교장, 관립한성덕어학교장에 정교가 임명되었다. 1906년 10월 부교관 오규신이 그리고 1907년 8월에는 오규신 대신 부교관 유정열이 한어학교장 대리를 맡게 되었다. 한어학교교관으로는 1906년도에 안택중 (1906.4.-1906.5.), 최영년 (1906.4.-?)이었으며 이들은 전통적인 한문교육을 받았다. 교관의 임기는 별도로 정해진 것 같지 않았고 임무기간이 1개월에서부터 때로는 몇 년씩으로 일정하지 않았다.

학부에서 1900년 10월 외국어학교, 의학교, 중학교 졸업생을 해당 학교에 수용하는 관제가 제정되었다. 외국어학교 졸업자들을 졸업과 동시에 (부)교관으로 임명하거나 특별시험으로 교관에 임명하는 규정이다. 황성신문 1901년 1월 18일자 기사에 보면 한어학교 졸업생이 학부에 청원한 내용이 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즉시 부교관으로 임명되는 칙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부임을 하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는 내용이다. 이후 한어학교에 1901년 1월 졸업생 4명, 7월 졸업생 6명 전원이 교관으로, 1903년 1월에는 졸업생 5인 중 3인이, 1905년 6월에는 졸업생 6인 모두가 교관으로 부임하였다(김영우 1983, 166쪽).

노인화(1989, 160쪽)에 의하면 1895년에서 1906년까지 외국어학교 부교관은 총 163명이었다. 이 들 중에서 한어학교 부교관은 28명이었다(유광렬, 이명철, 정우홍, 오극선, 김영갑, 오규신, 안병덕, 방대영, 최항석, 이각, 서정준, 최홍순, 장의환, 김완규, 김순용, 한봉호, 김원배, 윤해영, 윤상국, 정원시, 황성재, 서극우, 이완중, 신최휴, 이완중, 최희재, 임국승, 김영제). 한어학교에 1년 미만 근무한 부교관이 21명, 1-2년이 1명, 2-3년은 없고, 3-5년이 2명, 5년이상 근무한 부교관이 4명이었다. 3년 이상 근무한 부교관은 일어학교, 영어학교와 한어학교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어학교의 교관인 경우 평소에 얻은 한문 지식을 수업에 계속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장기적으로 재직을 할 수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어학교의 외국인 교관으로는 1891년 사이고(查以藁)가 초빙되어 중국어를 가르쳤다. 1894년 6월 청일전쟁으로 학교가 중단되고 1897년 청나라 사람 후원웨이가 초빙되었다. 1900년과 1903년에 학부에서 후원웨이를 한어 교사로 고용하는 한어학교 교사속합동 근무조건 계약서를 제차 체결하였다. 1900년 5월1일 후원웨이와 맺어진 한어 교사 계약서에는 임용기간(3년), 급여(월 100원), 주택임대비용(월20원), 교사의 의무사항, 규칙 위반시 해고 사항, 보조금 지급 관계, 병가 시 규정, 휴가 규정, 기타 유사시 규정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한어 교사 후원웨이의 재직시 우여곡절이 상당히 있었다. 1901년 7월21일자 황성신문 광고에서 보면 그가 지폐, 어음 등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내용이 있다. 1902년 1월29일자 황성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한어학교 교관 김남식이 교관 후원웨이와 서로

치고 받고 싸운 일이 있었다. 외국어학교장 조한벽이 조사하였고 김교관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어 2개월 감봉을 받게 되었다. 1903년 1월26일자 같은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학생과 (한국인)교관이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새 규칙을 정하였으며 위반시 문에 게시를 하겠다는 보고 내용이 있다. 1904년 7월 후원웨이는 신병을 이유로 무단으로 중국으로 귀국하여 5개월간 교육에 지장을 주었으며 1904년 12월 해고되었다.

1905년 3월에 두광위(杜方域)가 새로 중국인 교관으로 임명되었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외국인 교관 지휘권이 일본 측으로 넘어갔다. 한어 교사 두광위의 초빙건도 1905년 3월 일본공사에 통보하고 결과에 대해 조회하였다. 1907년 6월과 1909년 6월 두광위를 한어학교 교사로 재고용하는 근무계약서가 체결되었다. 후원웨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이었으나 두광위와의 계약은 2년씩 재체결되었다.

외국인 교관의 월급은 당시 해관세에서 지불이 되었다. 이들과는 정식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당시의 상황에 비교해 보면 외국인 교관은 상당한 대우를 받았다. 외국인 교관에 대한 계약내용은 월급을 위시하여 각 학교마다 조금씩 달랐다. 이 사실은 월급 문제를 둘러싸고 교관들이 수업 거부를 벌이는 등 각 국 공사와 학부(교육부)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다(노인화 1989, 170쪽).

4.6 학습자

4.6.1 입학생 및 재학생

한어학교의 입학생과 재학생 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 한어학교에 1897년에서 1899년까지는 매년 100여명을 훨씬 넘는 학생이 입학하였으며 이 수는 다른 어학교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1906년까지는 학생 수가 줄었으나 그래도 많은 수의 학생이 한어학교에 입학하였다. 1906년 이후에는 입학생수가 많이 감소하였다가 1910년에는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외국어학교 관제가 선포되기 이전인 1891년 10월 입학한 학생으로는 김균정과 교회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한어학교를 졸업한 것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김균정은 1898년도에 번역관, 청국공사서기, 예식사무위원으로 활동하였고 교회성은 1894년 9월 영어학교 수학 경력을 거쳐 1897년 영어학교 교관으로 활동하였다¹⁰⁾.

9) 입학생수 통계는 노인화 (1999)와 김영우 (1983)의 논문을 근거로 하였다. 노인화 (1999, 152-153)는 1897년에서 1906년 까지, 김영우 (1983, 172-173)는 1906년에서 1910년까지의 통계를 제시한다. 재학생수 통계는 노인화 (1989, 152-153)에 의한 것이다.

10) 국가지식포털사이트,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표 2. 관립한어학교 입학생수

연도	입학생수
1897	120
1898	150
1899	141
1900	82
1901	70
1902	52
1903	34
1904	56
1905	63
1906	47
1907	27
1908	12
1909	17
1910	36
총	907

표 3. 관립한어학교 재학생수

연도	재학생수
1891	35
1896	(확인 안 됨)
1897	40
1898	35
1901	32
1906	54
1909	38

위의 두 통계에서 입학생과 재학생의 숫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취업, 정치적인 상황 등으로 학생이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타교에서의 전학, 중간에 전입하는 경우가 있어서 재학생수가 1906년도와 1909년도에는 입학생수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원장부(大垣丈夫)는 1906년 8월25일 발행된 대한자강회월보 2호 논설(한국의 신학정)에서 경성(서울) 내의 일어학교 학생 수 88인, 영어학교 127인, 법어학교 44인, 한어학교 54인, 덕어학교 20인이라 하였다. 한어학교의 54인은 위의 1906년도의 한어학교의 재학생 수와 일치한다.

1909년 2월말 관립한성외국어학교 재학생수는 속성과(46인)를 포함하여 총 437명

으로 1학년이 183명, 2학년이 131명, 3학년이 77명이다(일람 47-48). 한어부 학생은 1학년에 13명, 2학년에 14명, 3학년에 11명으로 총 38인이다. 외국어학교가 폐지되던 1911년도 12월에는 한어부 2학년 7인, 3학년 5인이었다(김영우 1983, 180쪽).

4.6.2 졸업생

일람(57-59)에서 1900년 7월에서 1906년 7월까지의 졸업생을 확인할 수 있다.

- 제 1회 (1900년 7월): 이각, 정우홍 오극선, 최재승, 조재숙¹¹⁾
- 제 2회 (1901년 7월): 이원동, 신정휴, 김영갑¹²⁾, 오규신, 최희재, 유정열
- 제 3회 (1902년 12월): 임국승, 이명철, 김원배, 윤해영, 김영제
- 제 4회 (1905년 6월): 윤상국, 송병덕, 정완시, 황성재, 서극번, 서정준
- 제 5회 (1906년 3월): 최홍순
- 제 6회 (1906년 7월): 장의환, 김완규, 이민웅, 김순용, 한봉호

여기에서 1903년과 1904년도 졸업생이 빠져있다. 그러나 황성신문 1903.3.19자 기사에 보면 3월 18일 하오 1시 학부에서 영어와 한어학교 졸업식이 있었으며, 두 학교 졸업생이 총 9인으로 기재되어있다. 또 1904년 6월 29일 한어학교 제 4회 졸업생이 있던 것으로 황성신문에는 보도되었으나 누가 졸업한지는 명시되어있지 않다. 1906년에는 3월과 7월에 두 번 졸업식이 있었다.

일람(65-66)에서 외국어학교 통합이후 1908년도 3월 한어부의 졸업생 9인을 확인할 수 있다(손희성, 윤선호, 조변규, 유봉열, 이유상, 김구영, 강용주, 고희태, 최영호).

1909년도와 1910년도 한어부 졸업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조문제 1979, 25쪽).

1909년 5월15일 한어부 졸업생: 권태익, 이기향, 왕희림, 안성한, 목원봉, 정구동, 조원성, 한효석, 이정구 (9인)

1910년 3월 한어부 졸업생: 심세택, 정래진, 정은섭, 이성구, 이한중, 김세환, 정유진, 이희중, 김형기, 조유환, 이상철 (11인)

위의 조사를 전부 종합해보면 한어학교의 졸업생수는 다음과 같다¹³⁾.

11) 조재숙은 황성신문 1900년 7월4일자 에 졸업생으로 명시되어있다.
 12) 1901. 7.13.일 황성신문 보도에 의하면 7월12일 졸업식에서 김영갑이 교사의 연설을 학부대신에게 전하는데에 언어가 좋지 않아(아마도 번역이 좋지 않아) 이 학생이 학부에 졸업증서와 시상품을 반납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13) 1909년도에서 1910년도는 외국어학교가 통합된 관립한성외국어학교 한어부에 관한 것이다.

표 4. 관립한어학교 졸업생수

연 월	졸업생수
1900. 7.	5
1901. 7.	6
1902.12.	5
1903. 3.	9 (영어과 포함)
1904. 6.	? (확인 안 됨)
1905. 6.	6
1906. 3.	1
1906. 7.	5
1908. 3.	9
1909. 5.	9
1910. 3.	11
총	61

입학생(1897년-1910년) 907명의 숫자에 비해 졸업생수가 훨씬 적은 사실은(대략 6.7%만 졸업)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취직을 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한어학교나 다른 언어 학교의 교관으로 임용되었기 때문이다.

일람(57-59)에 보면 한어학교 졸업생들은 다음과 같은 직책으로 활동하였다: 돌산군수(오극선), 회사사무원(신정휴), 시종원 시종(김영갑), 본교 부교관(오규신, 유정열, 이명철, 김원배), 사립학교 교사(임국승, 정완시, 정영시, 최홍순, 장의환), 도지부 기수(안병직), 순사(서정준), 학부 서기관(이민웅) 등. 이들이 종사한 직책이 고위 관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급변하는 사회에서 실무를 행하는 직이었다.

4.7 교재

앞서 말한 대원장부의 논설에서 보면 교과서가 편찬중이라 하였으며 이 교과서들은 일어독본, 국어독본, 한문독본, 수신서, 산술서, 이과 교과서라 하였는데 어느 학교의 교과서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일어독본이 언급된 것을 보면 일어과의 교과서일 수 있고 기타 교과서는 각 과가 공통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한어학교에서 1908년도 전에 어떤 교재를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1908년도 이후에 외국어학교는 학부에서 편찬한 교과서나 학부대신이 검정한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일람(33-44)에는 1909년도에 제시된 외국어학교의 교과서 배당표가 제시되어 있다. 일람 37-39쪽에 제시된 한어부 교과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설명만 하기로 한다.

독해에는 1학년에서는 ‘아세아언어집’ 상권이, 2학년에서 ‘아세아언어집’ 상권과 ‘관화지남(官話指南)’, 즉 표준어 지침이 그리고 3학년에는 ‘아세아언어집’ 하권과 ‘관화지남’ 전권 그리고 ‘청어안내’, 즉 중국어 안내가 다루어졌다. 한용수(2000,651쪽)의 ‘한학교학 연구’에서 보면 일본이 근대시기의 한어교육을 위해 한어 교재중의 하나로 ‘증정 아세아언어집’과 ‘관화급취편(官話急就篇)’을 사용하였다. 이 교재들은 어법위주가 아닌 실용회화를 중시하여 구어를 강조하였다. 이 두 교재가 대한제국의 한어학교의 교재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어학교가 1906년 이후 교재를 학부에서 편찬한 것을 일괄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번역 과목에는 위에 언급한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수학에는 ‘산술 신서’, 역사에는 ‘동국역사 1’과 ‘동국역사 하권’, 지리에는 ‘대한지지 1’과, ‘대한지지 하권’, 한문에는 ‘논어 2’와 ‘논어 4권’, 작문에는 ‘국한문교용혹순한문(國漢文交用或純漢文)’이, 체조에는 ‘운동급보통(運動及普通)’이 교재로 제공되었다.

5. 맺는 말

근대교육이 시작되기 전 한국의 전통교육은 주로 중국 고전을 중심으로 음독을 하고 해석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언어 학습에는 한자로 된 책을 우리말 음으로 읽고 외우고 해석하는 것이었다. 평가면에서는 그 전 날 배운 것을 다음 날 암기하는 ‘강(講)’이라는 제도가 있었으며 우열에 따라 등급이 정해졌다.

19세기 말에 행해진 한어교육을 포함한 외국어교육은 교육내용, 형태, 방법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정해진 학급, 시간 엄수, 외국인교수, 평가제도 등 학교체제와 제도가 새로운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당시 한어교육은 외국어 교육 중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였다. 한어학교는 일어학교와 마찬가지로 다른 어학교보다 앞서서 1891년 설립되었다. 한어교육이 청일 전쟁으로 1894년에서 3년 동안 중지되었지만 1897년에 재개되었다. 반면에 러시아어교육은 러일전쟁으로 1904년 중단된 이후에 다시 재개되지 못하였다.

입학시험에는 한문으로의 독서와 작문이 국문으로 된 독서와 작문과 함께 초기에서부터 외국어학교가 폐쇄될 때까지 실시되었다. 다른 어학교에서도 한문 교육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한문의 지식이 문서작성, 교류, 번역 등에서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국한문 혼용 서류보다는 여전히 한문으로 된 서류가 대부분이었다. 한어학교의 입학생이 초기에는 다른 일어학교나 영어학교보다 훨씬 많았고 매년 꾸준히 입학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한문 및 중국어 지식이 어느 때보다 많이 요구된 것을 알 수 있다.

당대 외국어학교의 수업을 오늘날 언어 수업과 비교해 보면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면에서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외국어학교의 목표가 언어 습득을 위주로 실무(통역, 번역, 관리 업무 등)에 적합한 사람을 양성하는 등 뚜렷하였다. 오늘날의 대학의 어문학과 교육은 언어 사용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대학생으로서의 자질에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교육 내용면에서도 한어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고 일주일에 30시간씩(매일 5시간) 언어를 배우는 수업의 강도가 높았다. 언어 습득은 어느 언어든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장기간의 끊임없는 훈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한어과를 비롯한 다른 언어과의 교과과정이 정해졌을 것이다. 요즘의 언어교육은 일주일에 30시간씩 하는 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래에는 복수전공제도가 있어서 전공 한 과목을 배우는 시간(전공 학점)이 대폭 감소되었다.

한어학교 교과내용이 언어습득과 언어외의 습득 과목으로 구분되어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저학년에서 언어 습득에 대한 훈련은 초기에서 후기까지 지속되었고 언어외의 과목은 고학년에 이루어진다. 읽기, 쓰기, 말하기, 쓰기 기능을 위한 교과목의 변경도 많지 않고 이에 대한 수업시간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통역, 번역 실무를 위해서 특히 한어교육에서는 발음 훈련과 회화 교육이 강조되었다. 언어 외 과목으로는 역사, 지리, 이과 등 과목이 있었다. 현재의 어문 계열대학에서는 언어습득과목, 즉 언어의 4기능(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을 위한 연습 내지 훈련과정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언어외의 과목은 자국과 목표국의 역사, 지리를 토대로 정치, 경제, 사회로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교수 방법론 면에서 중국인이 직접 중국어로 수업을 하는 교육이 행해졌다. 한국 대부분 대학의 어문 계열에서 2000년대에 와서야 원어민이 강의를 하고 있다. 100여년 이전에 정부에서 실무 행정, 관리, 통역 등을 위해서 해당 외국인을 초빙하여 외국어로 교육하게 한 것은 과감한 개혁이었다. 그러나 이 교육이 1911년 이후 지속되지 못한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었다. 교육이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어학교육의 발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한다¹⁴⁾.

14) 본 논문은 2011. 5. 31. 투고되었고, 2011. 6. 30.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2011. 7. 15. 게재가 확정되었음.

❖ 참고 문헌

- 김수진 (1981). “고려 역과고 - 여원관계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우 (1983). “舊韓末 外國語教育에 관한 研究 (I), (II)”. 논문집 21, 공주사범대학교.
- 노인화 (1989). “大韓帝國 時期 官立學校 教育의 性格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성봉, 이형 편저 (2008). 한.중.일년표.
- 이광린 (1999). 한국 개화사 연구.
- 이나바 쓰기오, 홍준기역 (2006). 구한말 교육과 일본인.
- 정광, 윤세영 (1998). 사역원역학서 관본 연구.
- 조문제 (1979). “韓末의 法, 漢, 德, 俄語學校 教育의 研究 (I)”. 논문집 12, 서울교육대학교.
- 조문제 (1980). “韓末의 法, 漢, 德, 俄語學校 教育의 研究 (II)”. 논문집 12, 서울교육대학교.
- 조인성 (1991). “태봉의 궁예정권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총독부 (1909). 官立漢成外國語學校一覽.
- 한영우 (1997). 우리 역사.
- 한용수 (2000). “漢語教學 研究”. 동구어문집, 36, 637-654.
- 한용수 (2002). 한국 근대시기의 漢語 교육. 중국인문학연구소.
한어교사속합동.
- 구한국관보(<http://www.dlibrary.go.kr>)
- 국가지식포털사이트(<http://www.knowledge.go.kr>)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history.or.kr>)

<Zusammenfassung>

Chinesischunterricht in Zeiten der Aufklärung Koreas

Kwang-Sook Lee

In Korea gab es ab 1895 im westlichen und modernen Sinne errichtete Fremdsprachenschulen für Englisch, Deutsch, Französisch, Russisch, Chinesisch und Japanisch. Von diesen war die chinesische Schule die älteste. Bereits 1891 begann dort der Unterricht, der jedoch in Folge des chinesisch-japanischen Kriegs (1894-1895) drei Jahre lang (1894-1897) unterbrochen wurde. Nachdem Korea 1910 von Japan annektiert worden war, mussten 1911 die chinesische und die anderen Fremdsprachenschulen schließen.

Der Chinesischunterricht hatte den Zweck, Dolmetscher bzw. Übersetzer und diejenigen für Dienstleistungsbereiche auszubilden. In der ersten Phase wurde jungen Menschen im Alter von 15 bis 23 Jahren der Eintritt in die Schule erlaubt. Sie mussten eine Eintrittsprüfung absolvieren, die aus Lesen und Schreiben auf Koreanisch und Chinesisch bestand. Die Lehrkräfte kamen aus China und die Unterrichtssprache war dementsprechend Chinesisch. Der Lehrinhalt umfasste sprachliche und außersprachliche Fächer. Es gab Frühlings- und Herbstsemester, und man hatte 30 Wochenstunden Unterricht. Die Dauer des Schulbesuchs war für Japanisch und Chinesisch auf drei Jahre, für andere Sprachen auf fünf Jahre festgelegt. All diese Regelungen änderten sich 1906 und gerieten unter stärkere Kontrolle des Ministeriums.

Die Unterrichtsfächer bestanden aus Übungen zum Lesen, Schreiben, Diktat und Sprechen. Rechnen, Geografie, Geschichte und Naturwissenschaft wurden auch unterrichtet. Im Vergleich zu anderen Schulen war es charakteristisch, dass die chinesische Schule viel Übungen in Fächern der Aussprache, der vier Töne und der Interpunktion hatte.

Die Abgänger der chinesischen Schule fanden Anstellungen als Dolmetscher, als Lehrer, als Aushilfe am Hof und als Angestellte im Dienstleistungsbereich.

【Keywords】 Fremdsprachenschule, Chinesische Schule, Dolmetscher, Übersetzer, Dienstleistungsbereich

